

《黃帝八十一難經》중 疾病條에 관한 研究(Ⅱ)

金善鎬·尹暢烈*

I. 緒 論

《黃帝八十一難經》(以下 《難經》이라고 한다)은 《黃帝內經》(以下 《內經》이라고 한다)과 其他의 古醫經類에서 가장 難解하고 核心的인 主題를 가려, 問答를 假設하여 疑難을 解釋하는 方式으로 編纂된 것으로 《內經》으로 代表되는 東洋醫學의 古典的, 原典的인 思想을 各種 臨床活用書들의 哲學的 根幹이 되게 하였고, 오늘날 韓醫學이 臨床治療醫學으로서 人類에 貢獻할 수 있게 한 崇高한 價値가 있는 書籍인 것이다.

《難經》은 예로부터 秦越人(扁鵲)著로 되어 있으나 過去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를 疑心하였다. 왜냐하면 《史記·扁鵲列傳》에 《難經》이 提示된 바 없고, 《漢書藝文志》에도 이 書가 記載되어 있지 않다. 특히 그 內容으로 볼 때, 讖緯學說인 陰陽五行 神秘化의 影響을 받은 것이 매우 明顯하므로, 이것이 西漢以前의 著作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六朝時에 만들어진 것이라 하였는데, 그 主張은 著作年代를 너무 늦게 본 것이다. 왜냐하면, 《傷寒雜病論·自序》에 이미 八十一難의 名稱이 提示되었고, 또 《隋志》에 本書가 일찌기 三國時代 呂廣(呂博, 《玉匱經序》 呂博은 어려서부터 醫術로 有名하고 診脈論疾을 잘하였다. 著述한 바가 많고 吳나라 赤烏二年에 太醫令이 되었으며 《玉匱鍼經》을 撰하였고 《難經》을 註하였는데 當代에 크게 流行하였다. 撰集에는 呂廣이 吳나라 太醫令이며 《難經註解》를 著했다 하니 무엇이 옳은지는 未知다)의 注本에 言及되었음이 記載되어 있다. 卽 그것이 또 東漢以前에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¹⁾. 그러므로 近來의 사람들은 本書를 東漢人の 所作이라고 考證함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難經》에 最初로 註를 한 사람은 三國時 吳의 太醫令을 지낸 呂廣으로 알려졌으며 以後 數十家의 程註家에 依해 數十種의 註解書가 傳해 온다.

한편 本書에 대한 歷代研究는 대체로 《難經》의 原文을 註解·註釋하여 諸家의 研究를 匯選·補充하고 自己見解를 提出하는 方法과 《難經》原文中の 錯簡과 缺漏를 찾고, 編次를 再整理하여 《難經》原貌를 回復하기 위한 校勘을 試圖하는 方法으로 進行되어 왔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難經》에 대한 研究가 거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難經》中 疾病篇에 대하여 研究하고자 한다. 第五十九難, 第六十難, 第六十一難을 研究하여 실득한 것이 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研究 方法

本文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內容을 비교, 연구하기 위하여 各 難別로 原文에 縣吐를 하고 原文에 대한 解釋을 하였으며, 校勘·字句解를 가하였고 各家注를 인용하여 縣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各 難에 관한 考察整理를 하였다.

가. 題目은 《難經校釋》에 依據하여 달았다.

나. 原文은 滑壽의 《難經本義》를 基準으로 삼았다.

다. 出處는 《內經》의 原文을 爲主로 밝혀되 《內經》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출처없슴'이라고 하였다.

라. 縣吐는 전래의 方式을 원칙으로 하였다.

마. 解釋은 原文의 縣吐에 充實하도록 直譯을 위주로 하되 各 注釋들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內容을 위주로 하여 약간의 意譯을 하였다.

바. 校勘은 各 引用文獻 중에서 原文의 글자가 다른 것을 조사하였다.

사. 字句解는 原文 중에서 難解한 부분에 대하여 各 注家들의 의견과 各 解說書들의 意見들을 위주로 비교 설명하였다.

아. 各家注는 아래에 제시할 引用文獻의 注釋을 시대순으로 縣吐하여 제시하였고, 縣吐 이외에 注釋 內容의 이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脚注로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단 中國의 문헌을 앞에 제시한 후에 日本의 文獻들을 제시하였다.

자. 考察은 各家注의 內容들을 토대로 各 難에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教室

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95.

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총괄하여 정리하였다.

차. 考察 중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引用文獻에 대한 설명과各家에 대한 해설이나 注釋의 보충설명은 脚註로 처리하였다. (各家에 대한 설명은 《難經本義》의 〈本義引用諸家姓名〉을 참고하였다.)

카. 本論文에 사용한 부호는 引用文獻은 《 》, 校勘은 〈 〉, 字句解는 (), 各家注는 [], 脚注는 '로 표시하였다.

다. 強調해야 할 文句가 句인 경우에는 '로 強調하였고 節인 경우는 "로 強調하였다.

本論考에 參考한 《難經》의 注解書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각 注釋書의 시대와 순서는 千柄泰의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관한 考察》중 "難經의 注解書 目錄"²⁾을 參照하였다.

(參考 注解書)

時代	著 者	書 籍	備 考
元	滑 壽	難經本義	이하 本義라고 한다.
明	王 九 思	難經集注	이하 集注라고 한다.
	張 世 賢	校訂圖註難經	이하 圖註라고 한다.
	徐 大 椿	難經經釋	이하 經釋이라 한다.
清	黃 元 御	難經懸解	이하 懸解라고 한다.
	丁 錦	古本難經闡注	이하 闡注라고 한다.
	葉 霖	難經正義	이하 正義라고 한다.
民國	蔡 陸 仙	中國醫學 匯海·難經	이하 匯海라고 한다.
中 國	南京中醫學院	難經譯釋	이하 譯釋이라 한다.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이하 校釋이라 한다.
	凌 耀 星	難經校注	이하 校注라고 한다.
	王 洪 圖	難經	이하 中譯이라 한다.
	廖 平	難經經釋補證	이하 補證이라 한다.
臺 灣	唐 湘 清	難經今釋	이하 今釋이라 한다.
	黃 維 三	難經發揮	이하 發揮라고 한다.
	丹波元胤	難經疏證	이하 疏證이라 한다.
日 本	勝 萬 卿	難經古義	이하 古義라고 한다.
	加藤宗博	虞經衰腋	이하 衰腋이라 한다.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이하 研究라고 한다.

III. 研究 內容

第五十九難(狂病과 癲病의 鑑別)

【原文】

五十九難曰 狂癲之病은 何以別之은

然이라 狂疾之始發⁽¹⁾은 少⁽¹⁾臥而不飢⁽²⁾하고 自高賢也하며 自辨智也하고 自倨貴⁽²⁾也⁽³⁾하며 妄笑好歌樂하고

妄行不休, 是也⁽⁴⁾라

癲疾始發은 意不樂⁽⁵⁾하고 僵仆直視⁽³⁾⁽⁶⁾니라
其脈三部⁽¹⁾陰陽⁽²⁾俱盛이 是也⁽⁴⁾⁽⁷⁾라

【解釋】

五十九難에 이르기를 狂病과 癲病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답이다. 狂病이 처음 발할 때에는 잘 자지 않으며 배고프지도 않고, 스스로를 제일이라고 여기고, 지혜롭다 하며, 높다고 여기고, 잘 웃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며 실새없이 망행하는 것이다.

癲病이 처음 발할 때에는 기분이 좋지 않고 僵仆하며 直視한다.

그 脈이 三部에 陰脈과 陽脈이 모두 盛한 것이 그것이다.

【出處】

《靈樞癲狂第二十二》: "狂始發 少臥不飢 自高賢也 自辨智也 自尊貴也... 驚 善笑 好歌樂 妄行不休...", "癲疾始生 先不樂... 視舉目赤... 先反僵..."

【校勘】

(1) 少: 《衰腋》에는 '小'로 되어 있다.

(2) 倨貴: 《集注》, 《圖註》, 《懸解》, 《正義》, 《闡註》에는 '貴倨'로 되어 있다.

(3) 僵仆直視: 《集注》, 《圖註》, 《懸解》, 《正義》, 《闡註》에는 '直視僵仆'로 되어 있다.

(4) 是也: 《古義》, 《今釋》에는 '直視'뒤에 있다.

【字句解】

(1) 三部: '寸·關·尺'을 의미한다.

(2) 陰陽: 陰脈과 陽脈을 의미하며, 陽脈은 '浮·滑·長', 陰脈은 '沈·濇·短'을 뜻한다.

【各家注】

《本義》³⁾

[1-7] 狂疾은 發於陽이라 故로 其狀이 皆自有餘而主動하고 癲疾은 發於陰이라 故로 其狀이 皆自不足而主靜이라

其脈三部 陰陽俱盛者는 謂發於陽하야 爲狂則陽脈俱盛하고 發於陰하야 爲癲則陰脈俱盛也라

按二十難中에 重陽者狂 重陰者癲 脫陽者見鬼 脫

2)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관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p.40-42.

3)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117.

陰者四盲 四句는 當屬之라 此下重은 讀如再重之重이니 去聲이라

重陽重陰은 於以再明上文陰陽俱盛之意로 又推其極至라 脫陽脫陰은 則不止於重陽重陰矣라 蓋陰盛而極은 陽之脫也니 鬼爲幽陰之物이라 故見之요 陽盛而極은 陰之脫也니 一水不能勝五火라 故目盲이라

四明陳氏曰 氣并於陽則爲重陽이요 血并於陰則爲重陰이니 脫陽見鬼는 氣不守也요 脫陰目盲은 血不榮也라

癲狂之病은 靈樞二十一篇에 其論詳矣로대 越人特舉其概하니 正龐氏 所謂引而不發은 使後人自求之歟 ㄱ저

《集注》4)

[1-4] 丁曰狂病者는 病在手三陽而反汗이라 故陽盛即發狂也요 病在足三陰而反下라 故陰盛即發癲也라 楊曰狂病之候는 觀其人初發之時에 不欲眠臥又不肯飲食 自言賢智尊貴 歌笑行走不休하니 皆陽氣盛所爲라 故經言重陽者狂이라하니 此之謂也라 今人以此爲癲疾은 謬矣라

[5-7] 丁曰經言重陽者狂 重陰者癲이라 今三部陰陽俱盛者는 寸爲陽이요 尺爲陰이니 寸尺이 俱盛極而沈也라 楊曰癲은 顛也니 發則僵仆焉이라 故有顛蹶之言也라 陰氣太盛하니 故不得行立而側仆也라 今人以此爲癲病은 誤矣라

《圖註》5)

[1-7] 經曰重陽者狂 重陰者癲이라 狂病屬陽하고 癲病屬陰하니 陽主動하고 陰主靜이라 不飢는 邪在內也니 据傲不支也하야 僵撲不能立而頃倒라 三部는 寸關尺也니 關前爲陰6)이요 關後爲陰이라 陰陽二部 狂則皆見陽脈하고 癲則皆是陰脈也라

《經釋》7)

[1] 始發은 미성지시야라

[2] 狂屬陽하니 陽氣盛不入於陰故로 少臥하고 陽氣并於上故로 不飢라

[3] 三者는 皆狂之意也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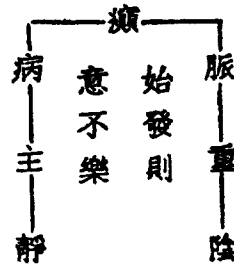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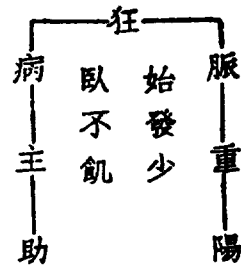
[4] 三者는 狂之態也라 狂屬陽하고 陽屬動하니 散而常有餘故로 其狀如此라

[5] 癲之意也라

[6] 癲之態也라 癲屬陰하고 陰性靜하니 結而常不足故로 其狀如此라

[7] 此는 總上二者而言이니 狂則三部陽脈皆盛하고 癲則三部陰脈皆盛也라

4)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254.



〔그림 1〕 狂癲病圖

[1-7] 靈樞狂篇에 論 癲狂之證 及針灸之法하야 因證施治 極爲詳備라 此段所引은 特經中之一二證이니 並無二者之疾이 其病形이 止此三四端也라 細考經文하면 自明이니 此는 又掛一漏 萬矣라

《懸解》8)

此는 引靈樞癲狂在文이라

《闡註》9)

[1-7] 此는 與二十難으로 同義나 然二十難但言脈하고 此則并言病狀하야 欲人知所治也라 謂狂之始發 少臥而不飢者는 是六腑陽邪實於胃하야 胃實而不和하니 則少臥而不飢矣라 陽性動而揚이라 故自居高賢辨智貴倨也요 陽火熾甚而衝於心이라 故妄笑歌妄行不休也라 治當瀉陽明之火而調其氣라 癲病

5)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學書局, 1976, p.3.

6) 陰: '陽'의 誤字인 듯하다.

7)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p.43.

8)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63.

9)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47.

《闡註》에는 本難이 46難으로 되어있다.

始發에 意不樂者는 是七情之陰邪 | 結於心이라 陰性靜而鬱이라 故意不樂矣요 鬱火內燔而不得泄이라 故直視而僵仆也라 治當瀉少陰之火而調其血이라 其脈三部陰陽俱盛者는 謂在則兩手寸關尺陽脈俱盛하니 病屬腑也요 癲則兩手寸關尺陰脈俱盛하니 病屬臟也라 陽脈者는 浮滑長也요 陰脈者는 沈濇短也라 盛者는 俱帶數實之意也라

《正義》10)

[1-7] 狂病屬陽하니 始發之時에 陽氣盛하야 不入於陰하니 故少臥라 陽氣并於上하니 故不饑라 其自高賢 自辨智 自貴倨는 皆狂之意也요 妄笑好歌妄行은 皆狂之態也라 病發於陽하면 陽性動하니 故其狀皆有餘하니 卽前二十難에 所謂重陽者狂이 是也라 癲病屬陰하니 始發之時에 意不樂하니 癲之意也요 直視僵仆하니 癲之態也라 病發於陰하면 陰性靜하니 故其狀皆不足하니 卽二十難所謂重陰者癲이 是也라 脈三部陰陽俱盛者는 是總上二者而言이니 謂發於陽爲狂 則三部陽脈俱盛하고 發於陰爲癲 則三部陰脈俱盛也라

按素問病能論에 帝曰 有病怒狂者하니 此病安生고 岐伯이 曰 生於陽也니라 帝曰 陽何以使人狂고 岐伯이 曰 陽氣者는 因暴折而難決 故로 善怒也니라 病名曰陽厥이니이다 帝曰 何以知之오 岐伯이 曰 陽明者는 常動하고 巨陽少陽은 不動하니 不動而動大疾이 此其候也니라 帝曰 治之는 奈何오 岐伯이 曰 奪其食하면 卽已니라¹¹⁾ 使之服以生鐵洛爲飲이니 夫生鐵洛者는 下氣疾也라하니 此는 總論在病屬於陽氣盛이라 陽氣는 宜於升達하니 若折抑之則病이라 其來太陽少陽之脈이 動之不甚者而動하고 且大疾 則陽明之脈常動者 | 其動盛하니 可知爲狂病將發之候라 先當奪其食하야 使胃火弱而氣衰하면 庶幾陽動息而病可愈하고 甚則服以鐵洛飲하야 下氣開結하야 而平木火之邪也라 靈樞癲狂篇에 曰 狂始生에 先自悲也하며 喜忘苦怒善恐者는 得之憂饑라하니 此는 言陰虛則陽盛하야 以致病狂也라 又狂始發에 少臥不饑하며 自高賢也 自辨智也 自尊貴也하며 善罵詈를 日夜不休者라하니 此는 心氣之實狂也라 又狂言驚善笑하며 好歌樂하고 妄行不休者는 得之大恐이라하니 此는 言腎病上傳於心하야 而爲心氣之實이니 狂以大恐 則傷腎也라 又狂하야 目妄見하고 耳妄聞하며 善呼者는 少氣之所生也라 하니 此는 因腎氣少하야 而致心氣虛在也라 又狂者 | 多食善見鬼神하며 善笑而不發於外者는 得之有

所大喜라하니 此는 言喜傷心志하야 而爲虛狂也라 又狂而新發하야 未應如此者는 先取肝經之曲泉左右動脈하고 及甚者見血하며 有頃已나 不已어든 灸骨骹二十壯이라하니 此는 分論狂病虛實이니 治未發先清洩木氣하야 而不令及於心神也라 素問通評虛實論에 帝曰 癲疾은 何如오 岐伯曰 脈搏大滑하면 久自己하고 脈小堅急하면 死不治니라 曰 癲疾之脈虛實은 何如오 曰 虛則可治요 實則死라하니 此는 總論癲疾屬於陰氣盛이라 陰盛則陽虛하니 故其脈搏指而大滑이라 心肝之陽未衰하야 有來復之象이라 故久而自己하니 若小堅急 純陰無陽 則死不治라 脈虛者는 邪亦虛하고 脈實者는 邪亦實하니 實卽堅急之意라 故亦主死也라 靈樞癲狂篇에 曰 癲疾始生에 先不樂하고 頭重痛하며 視舉目赤하며 甚作極하야 已而煩心하니 候之於顏이라하니 此는 言厥氣上乘於天氣와 及太陽君火也라 夫癲은 乃陰陽之氣 | 先厥於下하야 後上逆於顛而爲病이니 當候之於顏面氣色也라 又癲疾始作에 引口喞呼喘悸者라하니 此는 言太陽主開 陽明主闡하야 乃厥氣上乘하야 致開闡不清而爲病也라 又癲疾始作에 先反僵하며 因而脊痛者라하니 此는 厥氣逆於寒水之太陽과 及寒氣乘於地中也라 又治癲疾者는 常與之居하야 察其所當取之處라가 病至어든 視其有過者하야 寫之하야 置其血於瓠壺之中하면 至其發時에 血獨動矣한대 不動이어든 灸骨骹二十壯이라하니 此는 言治癲疾에 當分天地水火之氣而治之라 太陽之火日也 | 隨天氣而日遶地一周하야 動而不息者也요 地水者는 靜而不動者也라

常與病居하야 察其病在手足何經하니 其法은 致其血於瓠壺中하야 發時氣相感則血動하니 是는 感天氣太陽之運動也라 當候之手太陽陽明太陰者 | 是也라 不動者는 病陷於地水之中이니 當候之足太陽陽明太陰者也라 更宜灸骨骹二十壯하니 若不圍之於早하야 病成則難治라 故下經之骨癲疾 筋癲疾 脈癲疾은 多云不治也라 若夫癲證은 素問奇病論에 帝曰 人이 生而有病癲疾者하니 病名曰何며 安所得之오 岐伯이 曰 病名爲胎病이니 此는 得之在母腹中時에 其母有所大驚하야 氣上而不下하야 精氣并居 故로 令子로 發爲癲疾也라하니 此는 論生而病癲病은 爲先天所受之病이니 孕婦受驚하야 精氣上而不下하야 精與驚氣并居而爲病이라 故曰胎病也라 然이나 亦有不從母腹中得之하니 若卒然聞驚而得者는 蓋驚則神出하야 舍空하야 痰涎乘間而歸之也라 但癲證與

10)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108-111.

11) 《內經》에는 '夫食入於陰하야 長氣於陽 故로 奪其食卽已오'라는 原文이 더 있다.

癲厥異者是 仆時口作六畜聲과 將醒時吐涎沫耳라 更有血迷似癲者하니 婦人月水崩漏過多하야 血氣迷心커나 或産後惡露上衝하야 而語言錯亂 神志不寧者는 血虛神耗也라 又有心風似癲者하니 精神恍惚 喜怒言語 或時錯亂하야 有癲之意나 不如癲者之甚하니 皆痰氣爲病이라 不可不辨也라

《匯海》12)

徐靈胎注 狂屬陽이니 陽氣盛不入於陰이라 故少臥하고 陽氣并於上이라 故不飢라 自高賢 自辨智 自倨貴 三者는 狂之意也요 妄笑 好歌樂 妄行 三者는 狂之態也라 狂屬陽하고 陽性動하니 散而常有餘라 故其狀如此라 不樂者는 癲之意也요 僵仆直臥는 癲之態也라 靜屬陰하고 陰性靜하니 結而常不足이라 故其狀如此라 脈陰陽俱盛은 總上二者而言이니 狂則三部陽脈皆盛하고 癲則三部陰脈皆盛也라

四明陳氏曰 氣并陽則爲重陽이요 血并陰則爲重陰이니 脫陽見鬼은 氣不守也요 脫陰目盲은 血不榮也라

日醫際萬卿注 此篇所述이 此諸靈樞 則其辭尤簡하니 故能知百病之本也라 蓋百病之發이 其變雖多端이나 陰陽虛實이 最爲關係하니 至若狂癲之證하야는 明分其陰陽하야 以施之治면 則無有踏邪踏하야 陷大澤之憂라 此는 扁鵲舍其餘緒 而取이니 則陰陽二證者 爲使後學峴末者本矣니 古之義也라

滑伯仁曰 發於陽하야 爲狂 則陽脈俱盛하고 發於陰하야 爲癲 則陰脈俱盛也라 又當參考二十難注也라

篇者按컨대 是篇은 明明脫胎於靈樞癲狂篇하니 讀者 宜參考經文이면 尤爲詳悉이라

《古義》13)

按靈樞에 謂癲狂者 數件이니 癲曰先不藥 頭痛 視學目赤 煩心 曰引口啼呼喘悸 曰先反僵 因而脊痛이라하고 其餘에 曰筋癲疾 曰脈癲疾이라하니 是也라 狂曰先自悲喜忘 若怒善恐者 得之憂飢 曰少臥不飢 自高賢也 自辨智也 自尊貴也 善罵詈 日夜不休 日狂言驚善笑 好歌樂妄行不休者 得之大恐 曰目妄見 耳妄聞 善呼者 少氣之所生也 曰多食善見鬼神 善笑而不發於外者 得之有所大喜라하니 是也라 此篇은 僅舉一二條者 則去繁就簡하야 而使人知其有屬陽屬陰之分焉이니 大凡難經之爲書也라 其所論辨이 率皆舉其大義하니 龐安常謂引而不發이 是也라 況若此篇所述이 比諸靈樞 則其辭尤簡하니 故能知百病之本也라 蓋百病之發이 其變雖多端이나

陰陽虛實이 最爲關係하니 至若狂癲之證하야도 明分其陰陽하야 以施之治면 則無有踏邪踏하야 陷大澤之憂라 此는 扁鵲舍其餘緒 而取이니 則陰陽二證者 爲使後學峴末者本矣니 古之義也라

《衷腋》14)

滑氏曰 狂疾은 發於陽故로 其狀이 皆自有餘而主動하고 癲疾은 發於陰故로 其狀이 皆自不足而主靜이라 其脈三部陰陽俱盛者는 謂發於陽하야 爲狂則陽脈俱盛하고 發於陰하야 爲癲則陰脈俱盛也라 按二十難에 重陽者狂 重陰者癲은 即是也라 但彼因脈之陰陽而及之 此篇은 分病之陰陽하야 論其脈者也라

《疏證》15)

按廣雅曰 癲은 狂也라 顏師古急就篇注에 曰 顛疾은 性理顛倒失常하니 亦謂之狂也라 是는 楊注所非나 然이나 癲疾은 亦有類狂者라 素問脈解篇에 有狂癲疾之文하고 又厥論에 曰 陽明之厥 則癲疾欲走呼라하고 陰陽類論에 曰 病在腎 罵詈妄行 癲疾爲狂이라하니 是는 癲狂兼病者요 非爲一病也라 諸病源候論에 曰 癡者는 小兒病也니 十歲已上은 爲癲이요 十歲已下는 爲癡也라

【考察】

通行本 《難經》 二十難後段에 “重陽者狂 重陰者癲 脫陽者見鬼 脫陰者目盲”이라는 句절이 있는 데 이는 本難에 들어가야 할 문장이다. 本難에서는 더 나아가 狂과 癲의 구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狂病은 陽에 속하므로 정신적인 면에서는 스스로를 지위가 높거나 제일 낫다고 여기고,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며, 교만한 증상이 보이고, 행동 면에서는 배고프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웃거나 노래를 부르고 妄行을 일삼는다. 이는 狂病이 陽에서 發한 것으로 陽의 性質은 動을 主하므로 狂病의 表現증상이 모두 ‘有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癲病은 陰에 속하므로 정신적인 면에서는 슬퍼하는 모양을 나타내며 신체적으로는 直視僵仆하는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癲病이 陰에서 發한 것으로 陰은 靜을 主하므로 癲病의 表現증상이 모두 ‘不足’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13)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2.

14) 加藤宗博, 盧經衷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p.190-191.

15) 丹波元胤, 難經疏證, 서울, 一中社, 1991, p.1010.

12)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p.146-147.

이는 《靈樞癲狂篇》에 나오는 원문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그 출전이 명확하다고 하겠다.

‘其脈三部陰陽俱盛’에 관하여 각 註家들은 癲狂二證을 總括하여 설명하였는데, 狂病은 三部陽脈이 俱盛한 것이고, 癲病은 三部의 陰脈이 俱盛한 것이라고 하였다. 張世賢은 《圖註》에서 《難經》에서 말하는 三部는 寸關尺을 말하는데, 陰은 關後의 尺을 가리키며, 陽은 關前의 寸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今釋》에서는 ‘俱盛’에 대하여 狂病에 三部陽脈이 盛하다는 것은 狂病에 寸部の 맥이 浮洪數 등의 陽脈이 성한 것이며, 癲病에 三部陰脈이 盛하다는 것은 癲病에 尺部の 맥이 沈細遲 등의 陰脈이 성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는 二十難에서 본인이 해석한 重陽과 重陰의 의미와 같이 본 것이다. 그러나 本間祥白은 《研究》에서 重陽은 寸關尺의 三部에 모두 陽脈이 나타나는 것이고, 重陰은 三部에 모두 陰脈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만일 寸部에만 陽脈이 나타나는 것을 重陽이라고, 尺部에만 陰脈이 나타나는 것을 重陰이라 한다면 前後가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校注》에서도 重陰과 重陽을 寸尺부위에 모두 陰脈이나 陽脈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黃竹齋의 說을 인용하여 이를 증명하였다. 滑壽는 脈의 위치에 관하여는 言及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註家들이 三部에 모두 陽脈이나 陰脈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니, 따라서 本間祥白의 說이 옳다고 사료된다.

위 문장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末尾에 있는 ‘是也’의 위치에 관한 것이다. 《本義》를 비롯한 대부분의 註書에 ‘是也’는 ‘其脈三部陰陽俱盛’의 뒤에 위치하고 있다. ‘是也’는 문장 중간에 妄行不休의 뒤에도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狂病에 관한 설명이 ‘少臥而不飢 自高賢也 自辨智也 自倨貴也 妄笑好歌樂 妄行不休’이고 癲病에 관한 설명은 ‘意不樂 僵仆直視 其脈三部陰陽俱盛’으로서 ‘其脈三部陰陽俱盛’은 오직 癲病에 관한 설명으로 국한되게 된다. 그래서 膝萬卿은 ‘是也’를 ‘直視僵仆’의 뒤로 옮겨서 癲病에 관한 설명을 ‘意不樂 僵仆直視’에 국한시키고 ‘其脈三部陰陽俱盛’은 狂病과 癲病을 동시에 설명하는 문장이 되도록 수정하였는데, 《今釋》은 이를 따르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註家들은 ‘其脈三部陰陽俱盛’을 癲狂症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註釋하고 있음에도 원문에 대하여는 수정하지 아니하였는데, 膝萬卿만이 이를 과감하게 교정하여 주장을

꿨으니 여기서 그의 학문성향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癲病은 기타의 精神病과 혼동이 되기 쉽다. 楊玄操는 사람들이 癲病을 癇症과 쉽게 혼동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葉霖도 《正義》에서 似癲非癲之症이 매우 많으므로 臨證時에 자세하게 변별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긴다고 지적하였다.

《內經》에서 癲狂에 관하여 논한 部分이 몇군데 있는데, 本篇에서 논한 內容은 불과 몇마디가 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徐靈胎는 ‘掛一漏萬(하나를 인용하고 만개를 빠뜨림)’이라고 하여 酷評하였으나, 膝萬卿은 반대로 이것이 癲狂病의 요점만을 간추린 것으로서 《難經》의 장점이라고 인식하였다. 本間祥白도 이 의견에 동의하여 이르기를 이는 陰陽虛實에 중점을 두어 논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⁶⁾.

요약하면 本難은 《靈樞癲狂篇》의 內容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癲病과 狂病을 陰陽虛實의 측면에서 구별하려 했으며, 또한 《難經》에서 提示한 寸關尺 三部의 脈象과 연관시켜 說明한 것은 《內經》에는 없던 새로운 것으로 그 研究의 가치가 큰 것이라 하겠다.

第六十難(厥痛과 眞痛)

【原文】

六十難曰 頭心之病에 有厥痛 有眞痛⁽¹⁾은 何謂也. 然이라 手三陽之脈이 受風寒하여 伏留而不去者를 則名厥頭痛⁽²⁾이라
 入連⁽¹⁾在腦者를 名眞頭痛⁽³⁾이라
 其五藏氣, 相干⁽²⁾⁽⁴⁾을 名厥心痛⁽⁵⁾이라
 其痛⁽¹⁾甚하여 但在心⁽⁶⁾하고 手足青⁽²⁾者⁽⁷⁾를 卽名眞心痛⁽³⁾이니 其眞心痛者⁽⁸⁾는 旦發夕死 夕發旦死⁽⁹⁾라

【解釋】

六十難에 이르기를 頭와 心의 病에 厥痛이 있고, 眞痛이 있는 것은 무엇을 이릅니까?

답이다. 手三陽의 脈이 風寒을 받아 伏留하여 떠나지 않는 것을 厥頭痛이라고 한다.

속으로 들어가서 腦에 머무르는 것을 眞頭痛이라고 한다.

五臟의 氣가 相干하는 것은 厥心痛이라고 한다. 痛症이 심하여 心部位에만 있고 手足이 靑한 것은 眞心痛이라고 하는데, 眞心痛은 아침에 발하면

16)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臺灣, p.251.

저녁에 죽고, 저녁에 발하면 그 이튿날 아침에 죽는다.

【出處】

《靈樞厥病第二十四》

【校勘】

- (1) 痛: 《圖註》에는 '病'으로 되어 있다.
- (2) 青: 《匯海》에는 '清'으로 되어 있다.
- (3) 眞心痛: 《古義》에는 '眞頭心痛'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連: 連繫, 連及의 의미이다.
- (2) 干: 侵犯의 뜻이다¹⁷⁾.

【各家注】

《本義》¹⁸⁾

[1-2] 詳見靈樞二十四篇이라 厥은 逆也라

[3] 眞頭痛은 其痛甚하야 腦盡痛하고 手足青至節하야 死不治라 蓋腦는 爲髓海요 眞氣之所聚니 卒不受邪라 受邪則死라

[4-5] 靈樞載厥心痛凡五하니 胃心痛 腎心痛 脾心痛 肝心痛 肺心痛이 皆五藏邪氣相干也라

[6-9] 靈樞曰 眞心痛은 手足青至節 心痛甚이 爲眞心痛이라

又七十一篇曰 少陰者는 心脈也라 心者는 五藏六府之主也라 心爲帝王이니 精神之所舍요 其藏堅固하야 邪不能客하니 客之則傷心하고 心傷則神去하야 神去則死矣라

其眞心痛者는 眞字下當欠一頭字이니 蓋闕文也라 手足青之青는 當作清이니 冷也라

《集注》¹⁹⁾

[1-3] 丁曰手三陽者는 陽中之陽이니 今受風寒하야 伏留不去即是三陽逆於上이라 故名曰厥頭痛이라 入連在腦者를 名曰眞頭痛이라 腦者는 髓海이니 風寒入即死矣라

楊曰去者는 行也요 厥者는 逆也라 言手三陽之脈 伏留而不行則壅逆而衝於頭하니 故名厥頭痛也라 足三陽留壅도 亦作頭痛이니 今經不言之는 從省久²⁰⁾ 故也라 虞曰風冷之氣 | 入於三陽之經이라 故頭厥痛也요 其痛立已라 眞頭痛者는 謂風冷之氣 | 入於泥丸宮則爲髓海邪入하야 則曰眞頭痛也라 頭腦中痛

17) 凌輝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108.

甚而手足冷至肘膝者를 名眞頭痛이라하니 其寒氣入深故也라 風寒之氣 | 循風府入於腦라 故云入連腦也라

[4-5] 楊曰諸經絡이 皆屬於心하니 若一經有病하면 其脈逆行하고 逆則乘心하고 乘心則心痛하니 故曰厥心痛이라하니 是五臟氣衝逆致痛이요 非心家自痛也라

[6-9] 丁曰眞心은 不病이니 外經受五邪相干하니 名曰厥心痛이라 其痛甚則手足青而冷하고 神門穴絶者는 死病이니 名眞心痛也라

楊曰心者는 五臟六腑之主니 法不受病이라 病即神去氣竭하니 故手足爲之青冷也라 心痛手足冷者는 爲眞心痛이요 手足溫者는 爲厥心痛이라 頭痛도 亦然하니 從今日平旦至明日平旦이 爲一日이로대 今云旦發夕死夕發旦死는 是正得半日而死也라

《圖註》²¹⁾

厥者는 逆也요 眞者는 無他雜也라 手之三陽은 從手至頭하니 風寒客于頭則壅逆而不得流通하야 所以作痛하니 謂之厥頭痛이라 厥頭痛은 有六種하니 頭痛而若腫起而煩心이 一也요 頭脈痛心悲善泣이 二也요 眞眞頭重而痛이 三也요 頭痛意善忘按之不得이 四也요 頭先痛腰脊爲應이 五也요 耳前後脈湧有熱이 六也라 靈樞言之 | 詳矣라 腦爲髓海니 風寒之氣人²²⁾于泥丸宮而于腦를 謂之眞頭痛也라 心者는 君主之官이니 統屬一身이라 若各經受邪而逆則相干而痛하니 謂之厥心痛이라하니 卽靈樞所云 與背相控善瘦如從後觸其心偃僕者 腎心痛也 痛如椎針刺其心甚者 脾心痛也 色蒼蒼如死狀 終日不得太息 肝心痛也 臥若徒居心間動痛作益甚色不變 肺心痛也이니 此는 乃五藏之氣相干而痛이라 外一種을 名胃心痛이니 腹脹胸滿 心尤痛甚이 是也라 其痛異常不係各臟相干하고 手足青者는 卽名眞心痛이라 且夕은 卽早晚也니 言死之迫也라 死期之速이 如此하니 其不可治也 | 明矣라 眞頭痛도 亦死不治어늘 今止言眞心而不及眞頭者는 脫簡也라

《經釋》²³⁾

18)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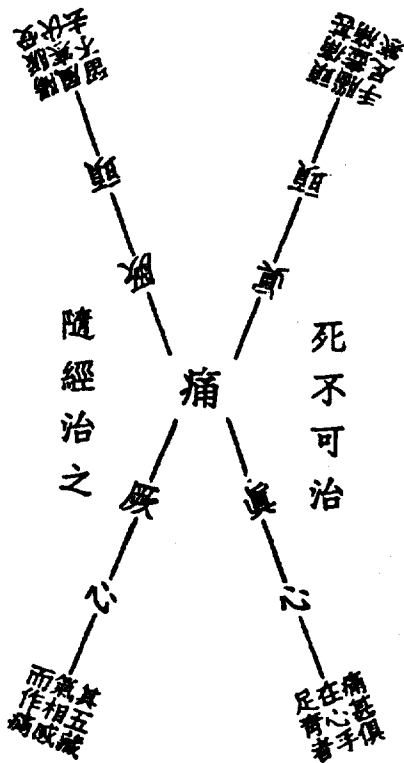
19)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p.255-257.

20) 久: '文'字의 誤字인 듯하다.

21)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學書局, 1976, p.4.

22) 人: '入'字의 誤字인 듯하다.

23)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그림 2] 頭心病之圖<圖註>

- [1] 厥은 逆也니 氣逆而痛也라 厥痛은 厥頭痛 厥心痛也요 眞痛은 眞頭痛 眞心痛也라
- [2] 手三陽은 小腸大腸三焦也라 素手之三陽이 從手走頭故로 風寒留滯則頭痛也라
- [3] 入連在腦는 邪進入於腦하야 不在經而在腦 이라 故曰眞이라
- [4] 相干은 謂藏有偏勝하야 邪乘於心也라
- [6] 但在心은 言無別藏相干也라
- [7] 手足靑은 寒邪犯君火之位하야 血色變也라
- [8-9] 心은 爲君主之官이라 故邪犯之即不治也 라 靈邪客篇에 心者는 五藏六府之大主也요 精神之所舍也니 其藏堅固하야 邪不能容이라 容之則心傷 하고 心傷則神去하고 神去則死矣라하니 卽此義也 라
- [1-9] 靈厥病篇에 厥頭痛之病有數證한대 其治法이 或取陽經커나 或取陰經하니 則非獨三陽之受

病을 可知라 若云從三陽하야 而傳及他經則得矣라 至眞頭痛經文에 云 手足寒至節 死不治하야는 則頭痛亦有死證하니 與心痛之手足靑至節者 死不治로 正同이라 至厥心痛之證하야 經文에 有胃胃脾肝肺 五種心痛之證하야 病形各殊나 亦不得云五藏相干은 蓋胃府不得稱藏이라 若心自干心 則卽眞心痛矣라 不在厥心痛之列이어든 亦當如經文明著其說이니 何得糊塗下語하야 使經文反晦也리오

<<懸解>>24)

[1-9] 此難은 靈樞厥病이라 厥病眞頭痛은 頭痛甚하고 腦盡痛하며 手足寒至節하야 死不治라

<<圖註>>25)

[1-9] 此章之義는 明明說臟病重於腑病이라 臟氣相干하면 重於風寒伏留라 故心痛言立死하대 頭痛不言立死也라 如風寒伏留六腑 則三陽之眞氣逆하니 故邪得直上而頭痛이라 腦爲髓海니 諸邪難犯이로대 必大損精髓者는 邪能犯之라 犯之면 難治라 如五臟氣相干於心하면 則陰氣逆上而痛甚이나 然心爲君主니 諸邪難犯이로대 必七情大傷其眞氣者는 邪能犯之라 犯之하야 但在心하면 痛而立死라 手足靑者는 肝之色也니 是心之母氣絶而現眞臟色也라 五邪之病發에 惟狂癲頭痛이 特異하니 故로 先揭而出之하야 以起下章諸邪之發病也라

<<正義>>26)

[1-2] 厥은 逆也니 言氣逆而痛也라 厥痛은 厥頭痛厥心痛也요 眞痛은 眞頭痛眞心痛也라 手三陽之脈 爲風寒留滯而不行 則壅逆而衝於頭하니 故名厥頭痛也라 足三陽之脈이 風寒留滯라도 亦作頭痛어늘 今不言者는 省文也라

[3] 眞頭痛은 不在經 而入連於腦라 故痛甚하야 腦盡痛하고 手足寒至節하야 死不治라 蓋腦爲髓海라 其氣之所聚 卒不受邪하니 受邪則死矣라

按素問奇病論에 帝曰 人有病頭痛하야 以數歲不已하니 此安得之며 名爲何病고 岐伯이 曰 當有所犯 大寒이 內至骨髓라 髓者는 以腦爲主하니 腦逆故令頭痛하고 齒亦痛하니 病名曰厥逆이니이다 此因寒邪入髓 則上入頭腦而爲痛하고 其邪入深이라 故數歲不已也라 若靈樞厥論篇所載厥頭痛은 面若腫

24)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63.

25) 丁錦, 古本難經圖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48.

<<圖註>>에는 本難이 47난으로 되어 있다.

26)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111-113.

醫家 및 書籍	內 容	青色	寒冷
張隱庵	夫寒熱 天之氣也 青赤五行之色也 眞頭痛者 寒至節 眞心痛者 青至節	○	
馬蒔	手足之色 青至指節	○	
楊上善	手足冷		○
張介賓(類經)	清音倩 寒冷也		○
丹波元簡(靈樞識)	清音倩 寒冷也		○
醫編	手足青過節 冷如冰		○
扁鵲心書	若卒心痛 六脈沈微 汗出不止 爪甲青 足冷過膝 乃眞心痛也	○	○
醫學入門丹台玉案	平素 原無心痛之疾 卒然大痛無聲 面青氣冷 咬牙噤齒 手足如冰冷者 乃眞心痛也		○
陳士鐸(辨證錄)	人有眞正心痛 …… 手足冰冷 面目青經者是也		○
楊維傑	手足發冷到肘膝關節以上		○
針灸甲乙經校釋(語譯)	手足寒冷到肘膝關節		○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手足冷至關節		○
靈樞經校釋	發作時 手足厥冷至肘膝		○
鍼灸大成校釋語譯	手足厥冷 肢端青紫	○	○

起而煩心者는 陽明之氣上逆而爲痛也요 又頭脈痛心悲善泣者는 厥陰之氣 上逆而爲痛也요 又貞貞頭重而痛者는 少陰之氣 上逆而爲痛也요 又項先痛 腰脊爲應者는 太陽之氣 上逆而爲痛也요 又頭痛甚 耳前後脈湧有熱者는 少陽之氣 上逆而爲痛也요 又眞頭痛甚 腦盡痛 手足寒至節은 死不治니 此는 非六氣之厥이요 乃客邪犯腦라 故頭痛甚하고 腦盡痛이라 蓋頭爲諸陽之首하고 腦爲精水之海하니 手足寒至節은 此眞氣爲邪所傷이라 故死不治也라 更有擊墮而爲痛者와 大痹而爲痛者와 寒氣傷營而爲偏痛者하니 是經論頭痛者 如此라 不獨手三陽爲病也라

[4-5] 諸經絡皆屬於心하니 蓋心主百脈하야 其營血由心而通於十二經絡也라 若一經有病하면 其脈逆行하니 逆則乘心하고 乘心則心痛이라 故曰厥心痛이니 是五臟氣衝逆致痛이요 非心家自病也라

[6-9] 心爲藏府之大主요 精神之所舍라 其藏堅固하야 邪不能客하니 客之則傷心하고 心傷則神去하고 神去則死矣라 眞心痛은 其痛甚이나 但在心而無別藏相干也라 手足青者는 寒邪犯君火之位하야 血色變也라 且發夕死 夕發旦死者는 心不受邪也라 眞頭痛도 亦然하니 蓋腦爲人身之主宰하야 亦不受邪라 故滑氏言其眞心痛者 眞字下欠一頭字하니 是矣라

按靈樞厥論篇에 曰 厥心痛에 與背相控하고 善瘦하며 如從後觸其心하야 偃僂者는 腎心痛也라 又腹脹胸滿하고 心尤痛甚者하면 胃心痛也라 又痛如以錐針刺其心하야 心痛甚者는 脾心痛也라 又色蒼蒼如死狀 終日不得太息者는 肝心痛也라 又臥若徒居 心痛間動作 痛益甚 色不變者는 肺心痛也라 하니 此는 別藏府相干之痛也라 又眞心痛에 手足青至節하

고 心痛甚하야 且發夕死 夕發旦死는 此傷氣藏眞而爲眞心痛也라

《匯海》27)

滑伯仁曰 詳見靈樞四篇이라 厥은 逆也라 眞頭痛은 其痛甚하야 腦盡痛하고 手足清至節하야 死不治라 蓋腦는 髓海요 眞氣之所聚니 卒不受邪라 受邪則死矣라 其眞心痛者는 眞字下 當欠一頭字니 蓋關文也라 清은 冷也라

徐靈胎注 厥은 逆也니 氣逆而痛也라 厥痛은 厥頭痛 厥心痛也요 眞痛은 眞頭痛 眞心痛也라 手之三陽이 從手走頭하니 故風寒留滯 則頭痛也라 入連在腦는 邪進入於腦하야 不在經而在腦라 故曰眞이라 相干은 謂藏有偏勝하야 邪乘於心也요 但在心은 言無別藏相干也라 寒邪犯心火之位也라 心爲君主之官이요 五藏六府之大主라 故邪犯之 卽不治也라 按靈樞病篇에 厥頭痛之病有數證이로대 其治法或取陽經 或取陰經하니 則非獨三陽之變病을 可知라 至眞頭痛하야 經文에 云 手足寒至節 死不治라 하니 則頭痛도 亦有死證하야 與心痛之手足青至節者 死不治로 正同이라 至厥心痛之證하야 經文에 有腎胃肝脾肺五種心痛之證하야 病形各殊로대 亦不得云五藏相干하니 何得糊塗下語하야 使經文反晦리오

張氏箋正曰 古稱眞頭痛眞心痛은 皆以手足清至節爲死不治라 蓋皆陰寒暴厥은 滅盡眞陽之重症이니 然若能迅速用藥하야 投以大劑四逆하면 或亦有一二之可救이니와 注者 每以心爲君主하야 邪不可干作解하니 本是 專制時代尊榮君主理想之空談이요

27)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p.146-147.

必非病理所宜有라 伯仁이 訓淸爲冷하니 其義甚是나 但淸明之淸을 本無作寒冷解者라 說文에 淸字從 欠而訓爲寒하고 又有 淸字 訓爲冷寒이라 呂覽有 度에 淸有餘也에 注訓爲寒하고 莊子人間世에 夔無 欲淸之人的 釋文訓爲涼이라하니 是는 皆借淸爲淸 爲淸之明證이며 而內經에도 又爲習見이라 乃徐洄 溪 | 本難經此節하야 意誤淸作靑하야 而注之曰 手足者 寒邪犯君火之位 血色變也라하니 望文生義 而 隨手杜撰이 最爲可鄙로다 洄溪 | 固不知古字假借 之例者也 <거>

《古義》28)

[1-9] 按頭心之痛은 有厥眞二焉하니 厥者는 謂 邪從是至彼而爲痛이요 眞者는 謂邪直居其處而痛甚 이라 凡頭心厥痛은 多與他病兼見이로대 如其眞痛 은 則單發之病 而命懸旦夕하니 固難爲治라 所謂三 陽經脈이 受邪而不去則逆하니 故衝頭而痛者는 以 手足三陽이 皆達於頭面故爾라 若入於腦海하야 留 連彌久而發者는 死矣라 所謂五藏邪氣 | 互相干犯 하니 故衝心而痛者는 以手足三陰이 皆循於心胸故 爾라 若其直在心藏하야 痛甚而手足淸者는 死矣라 據靈樞則知厥頭痛六條는 爲手足六陽經之病也요 厥 心痛五條는 所謂肺肝腎脾胃之邪也라 至其論治法 則悉且盡矣로대 此篇은 乃唯示其本焉耳니라

《衰腋》29)

[1-9] 手三陽之脈은 從手走至頭하니 今受風寒 厥逆而通을 名厥頭痛이라 其痛甚하야 腦盡痛하고 手足靑至節을 名眞頭痛이니 死不治라 蓋腦는 爲髓 海요 眞氣之所聚也라 厥心痛은 凡五니 皆五藏邪氣 相干爲痛이라 其痛甚하야 手足靑至節을 名眞心痛 이라 心爲君主요 神之所舍니 邪不能客이로대 客之 則神去하고 神去則死矣라 詳見靈樞厥病篇이라

【考察】

本難에서는 厥痛과 眞痛의 현저한 차이점이 무 엇인지를 논하였다.

먼저 厥과 眞의 의미에 대하여 滕萬卿은 邪氣가 다른곳으로 이르게 된 것을 '厥'이라고 하고, 邪氣 가 직접 그 곳에 居하여 痛이 심한 것을 '眞'이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滕萬卿의 해석에 따르면 厥頭痛은 手足三陽經이 風寒을 받아 伏留不去하여 병이 된 것이고, 厥心痛은 五臟의 氣가 相干하여 병이 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厥痛이 邪氣가

옮겨가서 병이 된 것임을 說明하는 것이다. 또 眞 頭痛은 寒邪가 직접 腦髓로 들어가서 병이 된 것 이고 眞心痛은 病邪가 직접 心部에 居하여 된 것 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眞痛이 邪氣가 직접 그곳 에 居하여 痛이 되었음을 說明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病原의 서로 다름을 說明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곳에서 옮겨 온 것인지, 직접 그곳으 로 邪氣가 直中된 것인지가 厥痛과 眞痛의 구별요 점이 된다는 것이다. 唐湘淸도 《今釋》에서 滕萬 卿의 설을 따르고 있다. 한편 本間祥白은 《研究 》에서 治療가능한 것이 厥痛이고 治療가 불가능 한 것은 眞痛이라 하였으며, 葉霖은 《正義》에서 經絡에 있는 것과 臟器에 있는 것의 차이로 說明 하였다. 모두가 원뜻과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하 나라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모두 참고해야 옳다고 사료된다.

"手之三陽之脈"에 관하여 楊玄操와 葉霖은 足三 陽經이 風寒邪를 받아도 그것이 留滯되어 頭痛을 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서 手三陽이라고만 한 것 은 省文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內容에 따라 滕萬 卿은 《古義》에서 本難의 原文을 "手足三陽之脈" 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靈樞》에서 足三陽經 도 頭痛을 일으킬 수 있다는 內容에 근거한 것이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今釋》에서도 原文에 '足'字를 첨가하고 있다. 그 病理에 관한 여러 註 家들의 공통된 견해를 살펴보면 手三陽은 從手走 頭하므로 風寒이 留滯하여 頭痛이 되며, 足三陽은 從足走頭하므로 風寒이 足三陽에 留滯하여도 厥頭 痛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五臟氣相干"에 대하여 葉霖은 《正義》에서 모 든 經絡이 心에 屬하므로 心主百脈하고 그 營血이 心에서 十二經脈으로 通한다고 하여, 만일 한 經 絡에 병이 있으면 그 脈이 逆行하여 乘心하여 心 痛이 되는데, 이것이 厥心痛이라고 하였다. 다른 여러 註家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나 葉霖 의 說明이 가장 명확하다고 하겠다. 《內經》에 기재된 厥心痛은 다섯가지가 있는데, 胃心痛은 胃 氣가 相干한 것으로 五臟氣라고는 할 수 없으나, 本難에서는 그 대강만을 말한 것이므로 省文이라 고 사료된다.

"手足靑者"에서 '靑'字의 해석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왔다. 淸字로 쓰이기도 하였는 데, '靑'字를 푸르다는 뜻으로 해석하느냐, 또는

28)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 版社, 1985, p.53.

29) 加藤宗博, 盧經衰腋, 北京, 中醫古籍出版 社, 1984, pp.43-44.

‘차다’는 뜻으로 해석하느냐가 주요 관건이 되어 왔다. 각 註家들의 의견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註家	內 容	青色	寒冷
《本義》	手足青之青 當作清 冷也		○
《集註》	其痛甚則手足青而冷		○
《經釋》	手足青 寒邪犯君火之位 血色變也	○	
《闡註》	手足青者 肝之色也	○	
《正義》	手足青者 寒邪犯君火之位 血色變也	○	
《匯海》	訓清爲冷 其義甚是		○
《古義》	痛甚而手足清者 死矣		○
《今釋》	手足清冷的		○
《研究》	手足厥冷者		○
《校注》	青 當作青色解	○	

위와 같이 어느 한쪽의 설이 우세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푸르다’는 해석과 ‘차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여기서 ‘手足青者’에 대하여 깊이 해석한 註家의 설을 들어보고자 한다. 《匯海》에서는 張箋正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張箋正은 《說文解字》에도 清字는 從 欠하여 訓爲寒하고 또 靚字도 있는데 ‘訓爲冷寒’이라 하였으며, 《呂覽有度》에

清有餘也의 注에서 ‘寒’이라 하였고, 《莊子人間世》에서도 ‘夔無欲清之人’의 釋文에 ‘訓爲涼’이라 하였으므로 모두 清을 假借하여 清이나 靚의 의미로 사용한 명백한 증거이며 《內經》에도 여러번 보인다고 하여 ‘차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校注》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주장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靈樞厥病》에 五種의 厥心痛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肝心痛은 ‘色蒼蒼如死狀’하고, 肺心痛은 ‘色不變’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색의 변화로써 心病을 감별진단한 근거이다. 그러나 六種厥頭痛 중에는 色診을 근거로 한 것이 없는데 이는 頭痛과 心痛은 色澤의 변화방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음을 說明하는 것이다. 心은 血脈을 주하므로 血脈이 응체하여 心痛이 되면 血絡과 手足四末에 青色이 나타날 수 있다. 《素問·經絡論》에 ‘凝泣則青黑’이라 하였고, 《素問·舉痛論》에 ‘青黑爲痛’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다. 또 《甲乙經·卷九》의 동일한 원문에서도 眞頭痛은 ‘手足寒至節’이라 한 반면 眞心痛에서는 ‘手足青至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서로 다른 점이 있음을 說明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靚’은 ‘寒’과는 다른

것으로 마땅히 靚色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다른 醫家들의 註釋이나 현대서적의 語譯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其眞心痛者 旦發夕死 夕發旦死”라고 하여, 眞心痛을 死病으로 보았는데, 滑壽를 비롯한 여러 註家들은 眞頭痛도 그러하므로 ‘頭’字가 첨가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校注》에서는 《甲乙經·九卷》에 이르기를 ‘眞頭痛 腦盡痛 手足寒至節 死不治’라 하였고, ‘眞心痛 手足青至節 心痛甚 旦發夕死 夕發旦死’라고 하였는데, 이는 眞頭痛과 眞心痛은 모두 예후가 불량하지만 兩者사이에는 확실한 구별점이 있음을 說明한 것이라 하였다. 病情上으로도 手足青至節은 手足寒至節보다 더 중한 것으로 대개 靚者는 寒을 겸하지만 寒者는 靚을 반드시 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임상에서도 眞心痛이 眞頭痛에 비하여 사망이 빠르므로 ‘旦發夕死 夕發旦死’는 오로지 眞心痛에만 해당한다고 하였다. 한편 丁錦도 《闡註》에서 臟氣가 相干하여 생긴 것이 風寒이 伏留하여 발생한 것보다 重하므로 心痛은 立死하지만 頭痛은 그렇지 않으므로 頭字를 첨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觀點의 차이로 보이는데, ‘旦發夕死 夕發旦死’를 生死의 여부를 가리는 死證에 중점을 두어 본다면 頭字를 첨가하여도 무방하겠지만, 發病에서 사망까지의 시간을 說明한 것이거나, 그 시간이 매우 급박함을 說明하려 한 것이라면 이는 《內經》에서 引用한 眞心痛의 독특한 표현³⁰⁾으로 眞頭痛과 같이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진실로 不治의 病人지에 대하여는 의심한 註家들이 있었는데, 《匯海》에서는 張箋正이 말을 인용하여 早期에 약을 쓰면 낫는 것도 개증에 있는데, 무조건 不治라고 하여 施治하지 않는

30)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靈樞·經脈篇》에서 ‘旦占夕死 夕占旦死’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그 死가 頃刻에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 표현을 제외한다면 《內經》에서는 유일하게 眞心痛에만 ‘旦發夕死 夕發旦死’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러나 後世 醫가들중에는 眞頭痛에도 이러한 표현을 쓴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玉機微義》, 《醫方類聚·卷之七十九·頭面門一·醫方大成·頭痛》, 《三因極一病證方論·卷之十六·頭痛證治》, 《世醫得效方·卷第十·大方脈雜醫科·頭痛》, 《醫宗必讀·卷之七·內科各種·頭痛》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唐湘淸도 《今釋》에서 《張氏醫通》, 《名醫類案》, 《辨證奇聞》, 《齊有堂醫話》를 인용하여 眞心痛과 眞頭痛은 그 원인에 따라 적절한 施治를 통하여 一部는 救할 수 있음을 說明하였다. 이는 과거의 의학수준이 낮아서 그 당시에는 不治의 病이었던 것이 의학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可治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且發夕死 夕發且死”가 반드시 不治의 病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危急症임을 示唆하여 급히 治療를 요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요컨대 《靈樞》에서는 厥頭痛의 종류만이言及될 뿐 그 病邪에 관하여는言及하지 않았는데, 本難에서 風寒을 처음으로 지적하였으니 가히 內經理論을 더욱 발전시켰다고 하겠다.

第六十一難(望·聞·問·切)

【原文】

六十一難曰 經言望而知之謂之神⁽¹⁾이요 聞而知之謂之聖⁽²⁾이요 問而知之謂之工⁽³⁾이요 切脈而知之⁽¹⁾謂之巧⁽⁴⁾는 何謂也⁽⁵⁾오

然이라 望而⁽²⁾知之者는 望見其五色하야 以知其病⁽⁶⁾이요

聞而知之者는 聞其五音⁽³⁾하야 以別其病⁽⁷⁾이요

問而知之者는 問其所欲五味하야 以知其病所起所在也⁽⁴⁾⁽⁸⁾라

切脈而知之⁽⁵⁾者는 診其寸口하야 視其虛實하야 以知其病⁽⁶⁾과 病在何藏府也⁽⁹⁾라

經言以外知之曰聖이요 以內知之曰神이라하니 此之謂也⁽¹⁰⁾라

【解釋】

六十一難에 이르기를 經에 “望而知之謂之神 聞而知之謂之聖 問而知之謂之工 切脈而知之謂之巧”라 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이다. 바라보고 안다는 것은 그 五色을 보아서 그 病을 알 수 있다는 것이요, 듣고서 안다는 것은 그 五音を 듣고서 그 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요, 물어보고 안다는 것은 欲求하는 五味를 물어보아서 그 병이 생긴바와 있는 곳을 알 수 있다는 것이요, 脈을 집고서 안다는 것은 寸口脈을 진찰하여 그 虛實을 보아서 그 病과 病이 어느 장부에 있는 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經에 이르기를 밖에 드러나는 것을 보아서 아는 것은 聖이고,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아서 아는

것은 神이라하니 이것을 이르는 것이니라

【出處】

출처없음.

【校勘】

〈1〉之: 《匯海》에는 없다.

〈2〉望而: 《經釋》에는 ‘而望’으로 되어 있다.

〈3〉音: 《正義》에는 ‘者’로 되어 있다. 誤字인 듯하다.

〈4〉也: 《闡註》, 《圖註》에는 없다.

〈5〉之: 《闡註》에는 없다.

〈6〉病: 《闡註》, 《經釋》, 《疏證》, 《圖註》, 《匯海》, 《古義》, 《今釋》, 《正義》에는 없다.

【字句解】

【各家注】

《本義》³¹⁾

〔1-6〕 素問五藏生成篇에 曰色見青如草滋者는 死하고 黃如枳實者도 死하고 黑如炁者도 死하고 赤如衄血者도 死하고 白如枯骨者도 死하니 此는 五色之見死者也요 青如翠羽者는 生하고 赤如雞冠者도 生하고 黃如蟹腹者도 生하고 白如豕膏者도 生하고 黑如烏羽者도 生하니 此는 五色之見生也니라 生於心하면 欲如以縞裹朱하고 生於肺하면 欲如以縞裹紅하고 生於肝하면 欲如以縞裹紺하고 生於脾하면 欲如以縞裹栝樓實하고 生於腎하면 欲如以縞裹紫하니 此는 五藏生色之外榮也라

靈樞四十九篇에 曰 青黑爲痛 黃赤爲熱 白爲寒이라하고 又曰赤色出於兩顴하대 大如拇指者는 病雖小瘥라도 必卒死하고 黑色出於庭하대(庭者顔也) 大如拇指면 必不病而卒이라하니라

又七十四篇에 曰診血脈者는 多赤하면 多熱하고 多青하면 多痛하고 多黑하면 爲久痺하고 多黑 多赤 多青 皆見者는 爲寒熱이라 身痛面色微黃하고 齒垢黃하고 爪甲上黃하면 黃疸也라하니라

又如驗에 產婦面赤舌青하면 母生子死하고 面青舌赤沫出하면 母死子活하며 唇口俱青하면 子母俱死之類也라

袁氏曰 五藏之色見於面者는 各有部分하야 以應相生相剋之候하니 察之以知其病也라

31)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p.119-121.

[7] 四明陳氏曰 五藏有聲하고 而聲有音이라
 肝聲呼요 音應角하니 調而直하고 音聲相應하면
 則無病하고 角亂則病在肝이라
 心聲笑요 音應徵하니 和而長하고 音聲相應하면
 則無病하고 徵亂則病在心이라
 脾聲歌요 音應宮하니 大而和하고 音聲相應하면
 則無病하고 宮亂則病在脾라
 肺聲哭이요 音應商하니 輕而勁하고 音聲相應하
 면 則無病하고 商亂則病在肺라
 腎聲呻이요 音應羽하니 沈而深하고 音聲相應하
 면 則無病하고 羽亂則病在腎이라
 袁氏曰 聞五藏五聲하야 以應五音之清濁 或互相
 勝負 或其音嘶嘎之類는 別其病也라

此一節은 當於素問陰陽應象論 金匱真言諸篇의
 言五藏聲音하니 及三十四難云云求之면 則聞其聲하
 야 足以別其病也라

[8] 靈樞六十三篇에 曰 五味入口에 各有所走
 各有所病이라

酸走筋하니 多食之하면 令人癢하고
 鹹走血하니 多食之하면 令人渴하고
 辛走氣하니 多食之하면 令人洞心하고 辛與氣俱
 行이라 故로 辛入心而與汗俱出하고
 苦走骨하니 多食之하면 令人變嘔하고
 甘走肉하니 多食之하면 令人悅心이라하니라(悅
 言悶)

推此하면 則知聞其所欲五味하야 以知其病之所起
 所在也라

袁氏曰 問其所欲五味中 偏嗜偏多食之物하면 則
 知藏氣有偏勝偏絕之候也라

[9] 診寸口는 卽第一難之義요 視虛實은 見六難
 并四十八難이라

王氏脈法讚에 曰脈有三部는 尺寸及關이라 榮衛
 流行하야 不失衡銓³²⁾하야 腎沈心洪肺浮肝弦은 此
 自常經이라 不失銖³³⁾分 出入升降 漏刻周旋 水下
 二刻 脈一周身 旋復寸口 虛實見焉은 此之謂也라

[10] 以外知之는 望聞이요 以內知之는 問切也
 라 神은 微妙요 聖은 通明也니 又總結之하야 言聖
 神하면 則功巧在內矣라

《集注》³⁴⁾

[1-6] 楊曰望色者는 假今肝部見青色者는 肝自
 病이요 見赤色者는 心乘肝하야 肝亦病이라 故見五
 色하면 知五病也라

[7] 楊曰五音者는 謂宮商角徵羽也니 以配五藏
 이라 假今病人好哭者는 肺病也요 好歌者는 脾病也

라 故云聞其音하야 知其病也라

[8] 楊曰問病人하야 云好辛味者면 則知肺病也
 요 好食冷者면 則知內熱이라 故云知所起所在라

[9] 丁曰視當作持字니 爲以手循持其寸口也라
 楊曰切은 按也니 謂按寸口之脈하야 若弦多者는 肝
 病也요 洪多者는 心病也요 浮數則病在府요 沈細則
 病在藏이라 故云在何藏也라(按藏下依脫府字라)

[10] 丁曰夫脈合五色하고 色合五味하며 味合五
 音이라 故有此望聞問切之法이 經內前篇이라 且說
 習之者 能知此면 乃是神聖工巧之良醫也라 楊曰
 視色聽聲切脈이 皆在外而知內之病也라

《圖註》³⁵⁾

[1-9] 難而易者를 謂之巧요 得其精者를 謂之工
 이요 大而化之를 謂之聖이요 聖而不可知之를 謂之
 神이라 神則望之卽知하야 不必問聞切也라 聖則望
 聞而知요 工則望聞且問하고 不必切也라 巧切則切
 脈하고 望兼望聞問之三者而後라야 知病之의也라
 五色은 青黃赤白黑也요 五音은 呼歌言哭呻也요 五
 味는 酸甘苦辛鹹也라 所在者는 見病之經也요 所起
 者는 始病之經也니 如心病이 因中風而得하면 心病
 爲所在요 中風爲所起也라

[10] 復引經文之言하야 以結上文之意也라 外者
 는 有症見于外而可視驗也요 內者는 內有病而未見
 外也라 外則顯而易知요 內則隱而難見이라 症見于
 外而知其內病者를 謂之聖이요 病在于內하야 外無
 可驗而能知之者를 謂之神이라

《經釋》³⁶⁾

[1] 望은 謂望病人之五色하야 而知其病之所在
 라 如素五藏生成篇 靈五色篇所云이 是也니 神은
 聖而不可知之謂라

[2] 聞은 謂聞病人之聲也라 如靈九針篇心主噫
 肺主欬와 素陰陽應象大論 肝在聲爲呼 心在聲爲笑
 及下文五音之類 是也라 聖은 謂藝之至於至極者
 也라

[3] 問은 謂問病人之所患 及其愛憎喜怒也라 靈
 九針篇에 云 肝惡風 心惡熱 氣并於肝則憂 并於心
 則喜之類 是也라 工은 專精之謂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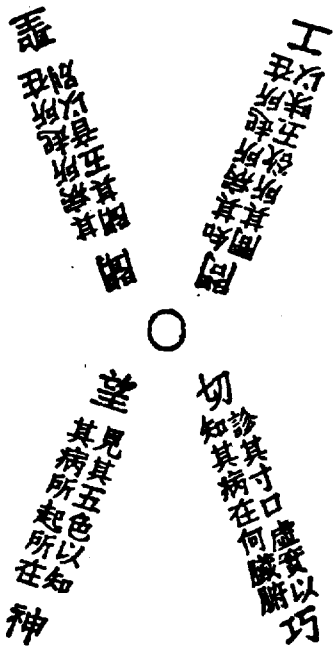
33) 重量이름 수. 무게의 단위, 兩의 24분의
 1, 進하여 극소(량).

34)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p.257-258.

35)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孚書局,
 1976, p.5.

36)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p.44.

32) 저울 전, 저울질할 전.



〔그림 3〕 四知之圖 (〈圖註〉)

〔4〕 切은 脈之法이라 詳靈素及前諸難中이라 巧는 心智靈變也라

〔1-5〕 靈邪氣藏府病形篇에 云見其色 知其病을 命曰明이요 按其脈 知其病을 命曰神이요 問其病 知其處를 命曰工이라하여 與此不同하니 未知越人 何所本也라

〔6〕 五音은 五臟所發之音也요 又五藏之音은 屬 宮商角徵羽라 詳靈五音五味篇이라

〔7〕 五味는 五臟所喜之味니 靈師傳篇의 臨病人 問이라 所便所起은 病之所由生이요 所在는 病之所 留處也라

〔8-9〕 別其何藏府之脈象하면 則知其病在何藏府 也라

〔10〕 外는 視色聞聲也요 內는 問欲切脈也라

〔5-10〕 發問以望聞爲神聖이어늘 今引經以望聞 爲聖하고 以問切爲神하야 又失工巧二端하니 其引 經語亦無考요 未詳何故라 又按聞問之法에 兩經言 之多端이어늘 今止以五音五味爲言하니 義亦不備라 按自四十八難至此는 皆論虛實邪正하니 傳變生死之 道라

〈懸解〉37)

〔1-10〕 以外知之는 驗其外而知之也요 以內知之

는 洞其內而知之也라

〈闡註〉38)

〔1-9〕 此章은 發明望聞問切四者之要라 五色者 是 青黃赤白黑也요 五音者는 邪入肺爲哭 入肝爲呼 入心爲言 入脾爲歌 入腎爲呻也요 五味者는 酸甘苦 辛鹹也라 所起者는 察其所欲五味中之何味하야 而 知病起何腑何臟也요 所在者는 知其病其何腑何臟하 고 而又現傳何腑何臟也라 三者를 俱知然後에 診其 寸口하야 再視其虛實하면 則在腑在臟之病이 無不 明矣리라

〔10〕 此章은 統包三卷全文之意而結也라 外者는 望其色 聞其聲하야 病未見而知之也요 內者는 問其 所欲五味 切其脈而察其所病하야 知其虛實也라 越 人이 望後世醫者ㅣ 必臻此境이라야 方合軒岐之道 니 否則未免爲粗工而已矣라

〈正義〉39)

〔1-5〕 望은 謂望病人五藏之色 見於面者ㅣ 各有 分部하야 以應相生相剋之候也라 聞은 謂聞病人聲 音하야 以察病之所在也라 問은 謂問病人之所患과 及其愛憎喜怒하야 以求病之原也라 切은 謂切病人 之脈하야 而得病出何藏何府也라 神은 神化不測之 謂요 聖은 至於至極之謂요 工은 專精之謂요 巧는 心智靈變之謂라하니 此는 與靈樞邪氣臟腑病形篇으로 微有不同하니 經言은 或別有所本也ㅣ저

〔6〕 望而知之者는 望其資稟色澤間之神氣라 靈 樞 所謂粗守形 上守神者ㅣ 是也라 然人之神氣는 在有意無意之間하야 流露最眞하니 醫者清心凝神하 야 一會即覺이요 不宜過泥泥則私意一起하야 醫者 ㅣ 與病者로 神氣相混하야 反覺疑似하야 難於捉摸 하나니 此는 又以神會神之妙理也라 神氣는 云何오 有光有體ㅣ 是也니 光者는 外面明朗하고 體者는 裏面潤澤이라 光은 無形하니 主陽主氣하고 體는 有象하니 主陰主血이라 氣血無乖면 陰陽不爭하야 自然光體俱備矣리라 素問五藏生成論에 曰 五藏之 氣라 故色見青如草茲者는 死하고 黃如枳實者도 死 하고 黑如枳實者도 死하고 赤如衄血者도 死하고 白 如枯骨者도 死하니 此는 五色之見死也라 夫五色 乾枯는 以氣血俱亡하야 無光無體하야 神氣已去者 也라 故主死라 又青如翠羽者는 生하고 赤如雞冠者

37)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63.

38)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 出版社, 1985, p.65.

39)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 社, 1981, pp.113-116.

도 생하고 黃如蟹腹者도 생하고 白如豕膏者도 생하고 黑如烏羽者도 생하나니 此는 五色之見生也니라 是以로 氣血未傷하여 有光有體하여 不能內舍而亦不外露者也라 故雖病而主生이라 又 生於心하면 如以縞裹朱하고 生於肺하면 如以縞裹紅하고 生於肝하면 如以縞裹紺하고 生於脾하면 如以縞裹瓜括藁實하고 生於腎하면 如以縞裹紫하나니 此는 五藏所生之榮也라 夫平人五藏 既和其色稟胃氣而出於皮毛之間 胃氣色黃 皮毛色白 精氣內含 寶光外發 既不浮露 又不混蒙 故曰 如縞裹也라 觀內經論色컨대 分死病平三等하여 雖未明言神氣로대 而神氣即寓其中이라 然五色內應五藏은 此道其常이요 而病則有變甚하여 有五色不應五藏者하니 此는 又變中之變也라 若能察神氣하여 因其常而識其變이면 則於望色之道에 得其要領矣리라

[7] 聞而知之者는 聞其音聲하여 分別清濁하여 以察其病也라 土者 其數五요 五者는 音也니 故音聲發於脾土하여 而響於肺金也라 在心主言에 心開竅於舌하니 舌者는 音聲之機也라 肝主語하니 肝循喉嚨하여 入頰頰喉嚨者는 氣之所以上下者也요 頰頰者는 分氣之所泄也라 肝心氣和 而後에 言語清亮也라 然이나 又從腎間動氣之所發이라 故腎氣短促하면 上氣不能接下氣矣니 是以로 發言歌咏이 出於五藏神之五志라 故有音聲語言不清者는 當責之心하고 肝能語言 而無音聲者는 當責之脾하며 肺能言語音聲 而氣不接續者는 當責之兩腎하니 此는 音聲之原委也라 若經에 以五音으로 配五藏하니 肝音角 其聲呼요 心音徵 其聲笑요 脾音宮 其聲歌요 肺音商 其聲哭이요 腎音羽 其聲呻이라 若明其原委하여 辨其清濁 分其陰陽 審其虛實하여 以察病情하면 於聞聲一法에 庶乎近矣리라

[8] 問而知之者는 問察其原委也라 夫工於問者는 非徒問氣證하고 殆欲即其證하여 以求其病因耳라 脫營失精은 可於貴賤貧富問問之하고 更當次第問其人 平昔有無宿疾 有無恚怒憂思 食喜淡喜濃喜燥喜潤 嗜茶嗜酒하고 再問其病初起何因 前見何證 後變何證 惡寒惡熱 孰重孰輕 有汗無汗 汗多汗少 汗起何處 汗止何處 頭痛身痛 痛在何時 痛在何處 口淡口苦 渴與不渴 思飲不思飲 飲多飲少 喜熱喜涼 思食不思食 能食不能食 食多食少 化速化遲 胸心脇腹 有無脹痛 二便通瀉 大便爲燥爲溇 小便爲清爲濁 色黃色淡이요 婦人則問其有無胎產 月事先期後期 有無脹痛 可有帶下 是赤是白 或多或少하여 種種詳詰하고 就其見證하여 審其病因이라야 方得治病求本之旨也니라

[9] 切而知之者는 診其寸口하여 以知其病也요 非內經遍診動脈之法也라 或이 問하대 內經遍診動脈은 祈設浮沈緩急大小滑濇之八脈하여 特於對待微甚懸絕에 著其相去三等이로대 而脈之情變已精하여 後世繁爲二十九脈하여 愈求精而脈愈晦者는 因獨取寸口之誤耶아 曰 非也라 張氏云 後世知識脈難하고 而不知古人審脈之更難也라 所謂識脈者는 浮而不沈也 沈不浮也 遲不及也 數太過也 虛不實也 實不虛也 滑不濇也 濇不滑也 長不短也 短不長也 大不小也 小不大也 緩不速也 弱不盛也 伏不見也 更無力也 微不顯也 散不聚也 洪洪大也 細微細也 代更代也 牢 堅牢也 動者 滑大於關上也 弦者 狀如弓弦 按之不移也 緊者 如轉索無常也 芤者 浮大而按之中空也 革者 中空而外堅也 結者 緩而有止也 促者 數而有止하여 以對待之法으로 識之하니 猶易分別於指下로대 所謂審脈者는 體認所見之脈何因 所主之病何證하여 以心印之而後得也라 仲景平脈篇에 曰 浮爲在表 沈爲在裏 數爲在府 遲爲在藏이라하고 又曰 浮則爲風 浮則爲熱 浮爲氣實 府爲氣虛 浮則無血 浮則爲虛라하니 是는 將爲外感乎 爲內傷乎 爲氣乎 爲血乎 爲實乎 爲虛乎아 是는 必審其證之表裏陰陽 寒熱虛實 病之久病新病 脈之有力無力하여 而斷之以意 然後에 參之以望聞問하고 必四診咸備라야 庶幾可保萬全이라 故曰 審脈之更難也라하니 可不慎歟아

[10] 視色聞聲者는 以外知之也니 故曰聖이요 問因切脈者는 以內知之也니 故曰神이라 此는 總結上文四診之意也라

《匯海》40)

[1-6] 楊玄操注 望色者는 假令肝部見青色者는 肝自病이요 見赤色者는 心乘肝하여 肝亦病이라 故見五色하면 知五病也라 五音者는 謂宮商角徵羽也니 以配五藏이라 假令病人好哭者는 肺病也요 好歌者는 脾病也라 故云聞其音하여 知其病也라 問而知之者는 假令病人好辛味者는 知肺病也요 好食冷者는 知內熱이라 故云知其所起所在라 切은 按也니 謂按寸口之脈하여 若弦多者는 肝病也요 洪多者는 心病也요 浮數則病在府하고 沈細則病在藏이라 故云在何藏府也라

[6] 滑伯仁注 素問五藏生成篇에 曰 色見青如草 茲者는 死하고 黃如枳實者도 死하고 黑如炁者도 死하고 赤如衄血者도 死하고 白如枯骨者도 死하나니 此는 五色之見死者也요 青如翠羽者는 生하고

40)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p.146-147.

赤如鷄冠者도 生하고 黃如蟹腹者도 生하고 白如豕膏者도 生하고 黑如烏羽者도 生하니 此는 五色之見生也니라 生於心하면 欲如以縞裹朱하고 生於肺하면 欲如以縞裹紅하고 生於肝하면 欲如以縞裹紺하고 生於脾하면 欲如以縞裹括藁實하고 生於腎하면 欲如以縞裹紫하니 此는 五臟生色之外榮也라 靈樞曰 青黑爲痛 黃赤爲熱 白爲寒이라하고 又曰 赤色出於兩顙하대 大如拇指者는 病雖小愈라도 必卒死하고 黑色出於庭하대 大如拇指면 必不病而卒死라하니라 又曰 診血脈者는 多赤하면 多熱하고 多青하면 多痛하고 多黑하면 爲久痹하고 多黑 多赤 多青 皆見者는 爲寒熱이라 身痛面色微黃하고 齒垢黃하고 爪甲上黃하면 黃疸也라하니라 又如驗에 産婦而赤舌青하면 母活子死하고 面青舌赤沫出하면 母死子活하며 脣舌俱青하면 母子俱死之類也라

[6] 張天成注 難而易者를 謂之巧요 得其精者를 謂之工이요 大而化之之謂聖이요 聖而不可知之之謂神이라 神則聖之即知하야 不必問問切也라 聖則望聞而知요 工則望聞且問하고 不必切也라 巧則切脈하고 必兼望聞問之三而後라야 知病之的이라 五色은 青黃赤白黑也요 五音은 呼歌言哭呻也요 五味는 酸苦辛甘鹹也라 所在者는 見病之經也요 所起者는 始病之經也니 如心病이 因中風而得하면 心病爲所在요 而中風爲所起也라

[1-10] 日醫藤萬卿注 靈樞에 見色而知日明이요 按脈而知日神이요 問病而知日工이어늘 此篇은 分神聖工巧하야 以配望聞問切하니 大率文異旨同이라 所謂五色 五音 五味 五脈者는 望聞問切之大要로대 而豈止是已리오 其形肉之肥瘠 皮膚之榮枯 骨節之大小도 是亦望也요 哭泣歌樂 謔語呻吟 訣別懊懣等情도 是亦聞也요 或有憂鬱 或有愛憎 或有妒媚 或有嫌疑之類도 是亦問也요 尺膚之寒熱滑濇 經脈之逆順도 是亦切也니 凡此四診者는 無貴無賤 無長無少하야 未會容闕一焉이니 苟失之면 則不足以爲工巧之業이어늘 況於神聖之術乎아 四診之義諦는 出內經諸篇하니 宜以參看이니라

[6-9] 汪機注 古人이 以切로 居望聞問之後는 則是望聞問之間에 已得其病情矣라 不過再診其脈하야 看病應與不應也라 若病與脈應則吉而易醫요 脈與病反 則凶而難治니 以脈參病이 意蓋如此하니 曷嘗以診脈爲貴哉리오 夫脈經一書 拳拳示人以診法이나 而開卷入首에 便言觀形察色하야 彼此參伍하야 以決死生하니 可見望聞問切이 醫之不可缺一也니 豈得而偏廢乎아 噫라 世稱善脈도 莫過叔和하야

尙有待於彼此參伍어늘 況下於叔和者乎아 故專以切脈爲言이면 必不能不至於無誤也리니 安得爲醫之良이리오

[6-10] 徐靈胎注 外는 視色 聞聲也요 內는 問欲切脈也라 按컨대 發問以望聞爲神聖이러늘 今引經以望聞爲聖하고 以問切爲神하야 又失工巧二端하니 其引經語亦無考요 未詳何故라

[8] 袁氏曰 問其所欲 五味中偏食偏多食之物하면 則知藏氣有偏勝偏絕之候也라

《古義》41)

[1-10] 按靈樞에 見色而知日明이요 按脈而知日神이요 問病而知日工이어늘 此篇은 分神聖工巧하야 以配望聞問切하니 大率文異旨同이라 所謂五色 五音 五味 五脈者는 望聞問切之大要로대 而豈止是已리오 其形肉之肥瘠 皮膚之榮枯 骨節之大小도 是亦望也요 哭泣歌樂 謔語呻吟 訣別懊懣等情도 是亦聞也요 或有憂鬱 或有愛憎 或有妒媚 或有嫌疑之類도 是亦問也요 尺膚之寒熱滑濇 經脈之逆順도 是亦切也니 凡此四診者는 無貴無賤 無長無少하야 未會容闕一焉이니 苟失之면 則不足以爲工巧之業이어늘 況於神聖之術乎아 四診之義諦는 出內經諸篇하니 宜以參看이니라

《哀腋》42)

[1-5] 望聞問切은 是謂四知니 乃爲醫之綱領也라

[6] 五色은 青黃赤白黑也니 以應五藏이라 假如色青爲肝 赤爲心 黃爲脾 白爲肺 黑爲腎이니 其間에 有相生相剋之變하야 以定死生하니 詳出素問五藏生成과 靈樞五色等篇內하니라

[7] 五音은 宮商角徵羽也니 五藏에 有歌哭呼笑呻之五聲하야 以應之라 假如肝聲呼 音應角 心聲笑 音應徵 脾聲歌 音應宮 肺聲哭 音應商 腎聲呻 音應羽하니 此는 聞聲音하야 而別知其病也라

[8] 五味는 酸苦甘辛鹹也니 以應五藏이라 假如味酸爲肝 苦爲心 甘爲脾 辛爲肺 鹹爲腎이니 問其所欲五味하야 而病之所起所在를 皆足以知之라

[9] 診寸口는 卽第一難之義요 視虛實은 見六難并四十八難하고 藏府配位는 見十八難이라 病病者는 猶言所病之病也라 經謂微妙在脈不可不察이라하니 蓋診之最爲重也라

[1-10] 以外知之는 望聞이요 以內知之는 問切

41) 藤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3.

42) 加藤宗博, 盧經哀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p.43-44.

也라 微妙謂神이요 通明謂聖이니 言聖神則功巧在內矣라

《疏證》43)

[1-10] 按컨대 自四十八難至此는 論病이니 是爲第四篇이라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 曰 黃帝問于岐伯曰 余聞之호니 見其色知其病을 命曰明이요 按其脈知其病을 命曰神이요 問其病知其處를 命曰工이라하고 說文에 曰 巧는 技也니 從工巧聲이라하니 夫望聞與問은 以醫知聽視하야 測病之情態라 故曰神 曰聖 曰工이라 唯診脈一事는 在于手技하니 故曰巧也라 楊注에 視色聽聲切脈은 皆在外而知內之病也라하니 是說不確이라

【考察】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 이르기를 “見其脈 知其病 命曰明 按其脈 知其病 命曰神 問其病 知其處 命曰工”이라고 하였는데, 本難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部分이 있으므로 그 출처가 《內經》인지는 확실치 않다.

本難에서는 望聞問切 四診에 관하여 논술하였는데, 四診의 對象과 그 순서도 함께 기술하였다. 望診이 가장 처음에 오는 것은 診斷上에도 그 순서가 처음임을 의미하며 望診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신묘함을 나타낸 것이다.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고대名醫들은 대부분이 望診만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신묘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秦越人이 齊桓公을 보았을 때 한번 보고서는 그 질병을 알아맞힌 예가 있다. 張仲景이 侍中王仲宣을 보고서 그의 나이가 20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40세 눈썹이 빠져 반년만에 죽을 것을 예견한 것도 望診만으로 질병을 진단한 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이 모두 ‘望而知之 謂之神’의 좋은 예가 되는 것이다. 本難에서는 望診의 對象을 五色으로 說明하였는데, 이는 그 중요한 것만을 들어 말한 것으로 실제로 望診의 범주는 매우 넓은 것이다. 예를 들면 望形이라든가, 望神 등이 있는데 이것도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며, 面部 이외에도 望舌이라든가 전신의 각부위를 관찰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다. 여러 추가들은 五色에 따른 질병 및 진단시의 주의점을 기술하였는데, 주로 《素問五藏生成論》의 예를 들어 같은 색이라도 그 선택에 따라 生死를

달리함에 주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또 《靈樞五色篇》의 內容을 인용하여 五色과 질병과의 관계를 논하였다.

‘聞而知之 謂之聖’이라 한 것도 聞診의 중요성이 望診에 버금간다는 것으로, 五音を 聞診하는 것이 주가 된다. 本難에서는 五音を 위주로 說明하였는데, 이는 五感중에서 耳를 이용하여 진단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聞診의 범주는 그보다 넓은데 嗅覺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나 그 분비물에서 풍기는 臭氣로써 질병을 진단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問而知之 謂之工’을 세 번째로 여겼는데, ‘工’이라 표현한 것이 神이나 聖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뒤쳐진 수준을 나타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본난에서는 病人이 欲求하는 五味를 위주로 說明하였는데, 이는 第三十五難에서 이미 서술한 것이다. 물론 問診의 범주도 여기서 말한 五味에 불과하지는 않는데, 病人의 既往疾患이나 발병경과, 현재증상, 연령, 직업, 생활상황, 평소의 불량한 습관, 개인의 성격, 가정상황 등이 모두 이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葉霖은 《正義》에서 이와 같은 問診의 범주를 상세하게 說明하였는데, 이러한 諸項을 모두 고려해야 질병을 바로 治療할 수 있다고 하였다.

‘切脈而知之 謂之巧’는 비록 四診의 끝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며, 사실상 診斷學에서 가장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는 部分이기도 하다. 《難經》에서도 一難에서 二十難까지 약 四분의 一이 脈에 관하여 說明한 것이다. 切脈은 三指의 觸角을 이용하여 진단하는 것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巧’라 한 것이다.

마지막 줄에 있는 ‘以外知之曰聖 以內知之曰神’에 대하여 徐靈胎는 外는 色을 보는 것과 소리를 듣는 것이고, 內는 所欲을 묻는 것과 切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葉霖도 역시 視色聞聲이 以外知之이므로 聖이 되고 問因切脈이 以內知之이므로 神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본다면 四診중에서 望聞이 聖이 되고 問切이 神이 된다는 뜻이 된다. 本難에서 四診을 말하면서 神聖工巧의 순서로 단계를 구분하였는데, 望診이 가장 높은 단계로서 神에 해당하며 聞診이 그 다음으로 聖이 되는 것임은 앞서 說明한 바와 같다. 神이 聖보다 一단계라면 以外知之가 以內知之보다 낮은 단계가 되는 것인데, 以外知之를 望聞이라하고, 以內知之를 問切이라 한다면 望聞이 問切보다 낮은 단계가 되어

43) 丹波元胤, 難經疏證, 서울, 一中社, 1991, p.1017.

서 그 의미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비록 전 반부에서 인용한 經言과 후반부에서 인용한 經言의 출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글자의 의미를 이렇듯 모순되게 사용하지는 않았으리라 사료된다. 張世賢은 《圖註》에서 이에 대하여 외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지만 內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진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밖에 드러난 것을 보아서 內를 아는 것이 聖이 되고,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病을 아는 것은 神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만일 望診은 밖으로 드러난 色을 보아 진단하는 것이므로 쉬운 것이고, 切脈은 隱微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잘못 해석한다면 徐靈胎와 葉霖의 해석이 옳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秦越人이 齊桓公을 진찰한 예나 張仲景이 王仲宣을 진단한 예를 본다면, 이들의 病은 속에 숨어서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望診만으로 그 병을 진단한 것으로 望診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望診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以內知之'가 마땅히 '神'의 경지가 되어야 한다.

요컨대, 四診은 그 상세한 내용이 《內經》에도 여러곳에서 서술되어 있으나 네가지를 병렬하여 四診이라 칭한 것은 《難經》이 처음인 것으로 本難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IV. 結 論

《難經》 중에서 疾病에 대해 言及하고 있는 第五十九難에서 第六十一難까지의 내용은 五十九難에서는 狂病과 癲病의 鑑別에 관하여, 六十難에서는 厥痛과 眞痛에 관하여, 六十一難에서는 望聞問切에 대하여 논술했다.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1. 五十九難은 《靈樞癲狂篇》의 內容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癲病과 狂病을 陰陽虛實의 측면에서 구별하려 했으며, 또한 《難經》에서 提示한 寸關尺 三部의 脈象과 연관시켜 說明한 것은 《內經》에는 없던 새로운 것으로 그 研究의 가치가 큰 것이라 하겠다.
2. 六十難에서는 眞痛과 厥痛의 구분에 관하여 논술했던 것으로 특히 厥頭痛의 원인을 처음으로 風寒이라고 지적하여 內經理論을 더욱 발전시켰다.
3. 六十一難에서는 望聞問切을 나열하여 四診이라고 처음 지칭하여 진단학발전의 한 과정을 차지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五十九難, 六十難, 六十一難의 內容은 비록 간결하지만 癲病과 狂病, 眞痛과 厥痛의 진단에 그 요점을 提示하였고, 四診을 提示하고 그 대상을 명시하여 진단학방면에 발전을 촉진시켰다. 앞으로는 癲狂病과 三部脈象의 관계, 眞頭心痛과 현대질병과의 연계 및 그 治療 등이 더욱 研究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1.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9
2.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관한 考察 대전 大田大學校 1993
3. 凌輝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4. 北京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5.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6.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85
7. 丹波元胤 難經疏證 서울 一中社 1991
8.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9. 滑壽 難經本義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10.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學書局 1976
11.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12. 黃元御 難經懸解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3.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4.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5.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16.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17.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18.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張馬合註) 中華民國 臺聯國風出版社 1981
19.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20. 郭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92
21. 張介賓 類經 서울 大成文化社
22. 黃自立 中醫百家醫論薈萃 서울 一中社 1988
23. 扁鵲心書
24.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一中社 1991
25. 皇甫謐 針灸甲乙經校釋 서울 一中社 1980
26. 楊繼洲 鍼灸大成校釋 서울 大成文化社 1996
27. 劉純 劉純醫學全集 서울 법인문화사
28. 醫方類聚 서울 여강출판사
29. 陳無擇 三因方 서울 一中社
30. 李仲梓 醫宗必讀 서울 一中社